

국힘 비대위원장 내주초 결정...당내 중진 유력 거론

9일 전국위서 최종 인선할 듯 권 대행 의견 수렴 위원장 물색 조해진·하태경 의원 비대위 반발 이준석 복귀 당헌 개정안 제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이르면 8월 둘째 주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4일 이준석 대표의 권위를 기정사실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이 대표의 복귀가 가능한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제안했다.

비대위 체제의 성격·기간을 정하는 문제가 유독 까다로운 상황이다. 비대위 종료 시점과 연동되는 전대 개최 시기에 따라 차기 당대표 임기는 물론이고 총선 공천권 부여 여부 등 권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여론 내 권력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원장 선정에 당내 여론뿐만 아니라 유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비록 당의 '입시 간판'이지만 인선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다.

비대위원장은 내주 초인 9일 전후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5일 비대위 체제 전환 필요성에 대한 당헌 유권해석을 위한 상임전국위에 이어, 이준석 대표의 '사고' 사태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논의·결정하기 위한 전국위가 소집될 날이다.

이번 전국위 일정에 맞춰 비대위원장 후보자가 내정된다면 당일엔 비대위원장 지명 안건까지 동시 처리 함으로써 '질서 있는 비대위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행을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직후부터 당내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하며, 차기 비대위원장 물색에 나섰다. 특히 3선 이상 중진부터는 권 대행이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직접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

해졌다. 원내는 현역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최다선인 5선 가운데는 주호영·정우택 의원이 우선 거론되며, 3선이지만 김태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주호영, 정우택 의원의 경우 각각 21대 국회 전반기와 20대 국회 때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얕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용을 수습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앞서 거론되는 이유다.

또 이날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 물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 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당은 의중에서 이미 이 대표 징계를 권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했다. 당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젊은 당 대표를 물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당한 개정까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내놓은 당헌 일부 개정안은 당 대표가 '사고' 상황일 때는 대표 지위가 유지되도록 하고 당무에 복귀하면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비대위 존속 기한을 상황별로 구체화했다. 현행 당헌은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선출되면 비대위가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대표 사고 시'에 꾸러진 비대위의 경우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존속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했고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두 의원은 이를 '상성 당헌 개정안'으로 이름 붙이고 "이준석 컴백이 가능한 개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끝없는 법적 공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판약에 파국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준석 당 대표와 당 간에 끝없는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이 당헌 일부 개정안이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국회를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한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美 '칩4' 가입 요구 거절할 수 없는 제안...가입 불가피"

국회 반도체 특위 설치 촉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반도체 공급망 동맹)'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며 "미국의 '칩4' 가입 요구는 우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은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칩4'는 미국 주도해 한국·일본·대만 등 4개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맹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칩4' 가입 요

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 손실의 크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칩4' 가입 결정 시한이 8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안 의원은 '칩4' 가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안 의원은 "칩4' 가입 시 중국 수출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건 분명하다. 그러한 단거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칩4' 가입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칩4' 가입을 비롯해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의 제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이 주장했던 국회 차원의 상설특위와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시간 낭비와 소모적 논쟁을 일소할 수 있는 입법·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신우철 완도군수,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 선출

신우철(사진) 완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신 군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선 8기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는 지방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의 강화를 위해 6·1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63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구성돼 있다.

신 군수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된 배경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한 단체장인 데다, 더불어민주당 참정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 군수가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되면서 민주당 당무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당 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사무총장, 시도당 위원장과 당 소속 사·도지사 등이 포함된다.

신 군수는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대표로서 당 지도부와 63개 기초자치단체장 사이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지방 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코로나 대응, 민생 경제, 재정 분권 등 해결해야 할 의제가 산재해 있다"며 "기초단체장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중앙당과 정부에 적극 전달해 지역발전을 견인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오늘 국회서 당정협의회...규제 혁신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규제 혁신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요 안전에 대해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말부터 가동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은 TF는 총 1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지난날 말 TF 회의를 주재하며 TF의 첫 성과로서 '정부가 규제에 막혀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 프로젝트에 활로를 열어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